

개 회 사

金 志 柱 회장



뜻깊은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의 통신주관청, 공중통신사업당국 관련학계 및 연구단체 그리고 업계의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전산망 기술표준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오늘날 정보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관련산업이 고도의 성장을 계속함에 따라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와 다양각색의 정보처리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또한 저마다 최고의 신뢰성과 경제성 및 편리함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중에도 급변하는 정보문화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마땅히 편익을 누려야 할 이용자들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을 겪고있음 또한 사실이다. 심지어는 이용자층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거나 그 폭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해졌다.

이러한 일들은 발전에 수반되는 역기능으로서 일찌기 정책당국과 관련학계, 연구단체 등에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2000년대초 고도정보화 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비능률 내지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다.

또한 산업환경면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통신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기술기반이 아직은 취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여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형편으로서 정부에서는 이 부문의 집중적 투자와 함께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이 갖추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통신회선사용의 부분적 제한을 통하여 선진자본과 기술

의 국내시장 참여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봉적 대처는 국내산업 보호 육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내의 정보통신 역무업 발전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부정적 측면의 노정과 함께 국가간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내포 함으로써 최근 다른 나라로부터 통신시장의 개방을 요구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실례로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통신 실무회담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VAN 사업을 개방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 사실을 들 수 있겠다. 해가 갈수록 이러한 요구를 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점차 그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 금융 등 국가기간 전산망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 분야의 개선적 환경변화를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국가기간 전산망 추진은 모든 분야에 걸친 기존 환경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국가 신경조직의 전산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확산제고와 함께 관련업계의 의욕을 크게 고취시켜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하겠다.

이상 언급한 국내외적 환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산업발전 및 국민편익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꼭 필요함을 당연한 귀결로 적시하여 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모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의미가 자못 깊다 하겠다. 부디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과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표준화의 추진은 통신주관청 및 공중통신사업자와 산, 학, 연 모두의 컨센서스가 대전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저희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와 토론의 장을 계속 마련할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해 주어진 임무와 기능수행에 전제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며 각계의 끊임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